

제13편
 덕소신앙촌시대 <제1부>
 三. 144,000의 왕의 수

제14편
 제3신앙촌 시대(제1부)
 一. 제3신앙촌인 기장(機張)신앙촌
 1) 1970년대의 한국의 상황
 2) 제3신앙촌의 건설
 二. 제3신앙촌은 완성자 구세주의 출현을 상징함
 1) '셋째올타리에 들어가면 '유리집'을 짓고 산다
 2) 셋째문을 들어가면 황금종이 울리는 곳이다

3) 144000수의 비밀(秘密)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144000의 수만 하더라도 아무나 풀 수 없게 가려 놓았다. 전세계 기독교인들은 이 144000의 수에 들기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144000의 수가 양을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그래서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올바른 길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늘의 사람을 직통으로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이 144000의 수는 회복된 세 분 하나님을 가리킨 수이다. 즉 144000의 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묵시록 14장에는 144000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했고, 또 묵시록 7장에는 144000수 외에 구원받은 흰 옷 입을 무수한 무리들이 있다고 기록해 놓았다. 이 두 예언은 왜 상반되게 예언해 놓은 것일까? 그것은 묵시록 14장의 예언은 약조건일 때 세 분 하나님(144000)만 겨우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회복되시어 구원을 받으시고 그 외에는 전부 멸망받는 기가

제13편 - 덕소신앙촌 시대 <제1부> 제14편 - 제3신앙촌시대<제1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55회)

막힌 약조건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묵시록 7장의 예언은 144000인 세 분 하나님이 완성되시고(구세주) 그분을 통하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을 구원시키는 호조건을 말한 것이다.

그러면 144000이 어떻게 해서 세 분 하나님이 되는 것일까?
 십(十)은 하나님을 뜻하고, 사만(四萬)은 해외이긴자를 말하는 수이며, 사천(四千)은 마지막 아담인 세번째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수이다.

이와 같이 144000은 영적인 말씀이요, 영적인 수이다. 하나님, 아담, 해외의 세 분을 말하는 영적인 말씀이요, 하늘의 완전수 삼수인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해석을 해보면 영모님께서 덕소 제2신앙촌에서 말씀하신 "140000의 수는 채워졌고 이제 4000명만 더 채우면 된다고 하신 말씀은 해외 하나님이 승리하여 출현하시는데 성공을 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려서 알린 것이다. 또 4000명만 채우면 된다고 하신 것은 세번째 하나님인 아담하나님만 출현시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영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었다."

"이긴자가 나오지 않으면 나도 지옥이야"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던 영모님은 완성자 구세주이시며, 아담이긴자인 4000을 찾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영적인 엄마인 영모님은 마지막 아담하나님을 찾아 성공적으로 완성된 구세주로 출현시킬 수가 있을

는지에 대해서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로 아슬아슬 하였던 것이다. 삼수의 하나님으로 완성이 안 되면 두 분의 하나님이 출현에 성공을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 결국은 다 멸망이 되고 하나님도 역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최악조건이 되는 것이다. 세 분 하나님이 성공리에 출현하시어 일체로 완성이 되셔야 하나님은 구세주가 되시어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 분 중 두 분은 회복되고 한 분이 회복하시는데 실패를 하신다면 성공적으로 출현하신 두 분 하나님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정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영모님은 단상에서 이긴자가 나오지 않으면 나도 지옥이야 하시면서 우셨던 것이다.

격암유록 말운론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이 한 구절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는 구절이다.

一四數不足之投火滅之
 일사수부족지투화멸지 末運論에서
 "일사(一四)의 수는 부족한지라 불을 던져 멸망케 할 것이다."

격암유록 말운론에 예언된 이 예언은 너무나도 전술한 최악조건을 실감나게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一四의 수는 부족하기 때문에 불을 던져 멸망케 할 것이라는 이 말은 一四四의 수라야 완성되는 것인데 一四수만 채우면 한 분의 四수인 하나님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로 끝

이나게 되어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예언이다. 즉 마지막 아담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때의 비참한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덕소 제 2신앙촌은 두번째 해외하나님의 성공적인 출현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여인으로 죄를 완전히 벗고 이기신 하나님으로 출현했다는 상징으로 제단 전면 양벽에 여인의 나체를 상징하는 추상적인 조각을 만들어 붙이고 또 144000명 중 140000명은 채워졌다고 선포하면서 해외이긴자의 성공적인 출현을 경축하기 위한 큰 축제 행사를 하시는 것이 바로 덕소 신앙촌 건설인 것이다. 둘째 하나님인 해외이긴자를 출현시키시는 데 성공을 거두신 영모님은 이제 세번째 하나님을 출현시켜야 하는 숨가쁜 과정을 가져야만 한다. 과연 영모님은 세번째 하나님도 성공리에 출현시킬 수가 있는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3신앙촌시대(제1부)

一. 제3 신앙촌

1) 1970년대 한국의 상황

1970년대는 박태선 영모님이 제 3신앙촌을 건설하시던 때이다. 박정희 장군이 군사혁명을 성공시켜 군사정권 하에서 광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일으키고 있었다. 단군 이래로 굶주려 온 한국인들의 생활 속에서 굶주림의 대명사가 된 '보릿고개'를 해결하여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게 된 시절이었다. 무수한 생산공장은 주야로 가동이 되고 한국 제품

이 전세계로 수출되어 한국의 경이로운 경제 발전에 세계가 놀라고 있던 시절이다. 사람들은 한국의 경제 부흥의 공로를 박정희 장군의 공로로 돌려 박정희 장군을 칭송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박정희 장군은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천지의 운행원리(運行原理)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한국의 눈부신 발전이 하늘의 섭리 속에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박태선 영모님의 출현을 기점으로 대호운(大好運)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격암유록 농공가에 보면 開闢以來初逢運 三八木運始皇出(개闢以來初逢運 三八木運始皇出)라고 했다. 이 말은 '개벽 이래 처음으로 맞는 운인데 삼팔목운 되는 박태선 영모님을 시작으로 왕중왕이 출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정(親政)을 하시지 않시고 하나님 앞에서 직접 백성들을 통치할 군왕을 즉 섭정왕(攝政王)을 세우시어 간접 통치를 하시기 된다. 즉 하늘의 뜻으로 세워진 분을 섭정군(攝政君)으로 위촉하여 개벽의 역사를 하시기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박태선 하나님은 박정희 대통령을 앞에 세워서 구세주 출현할 한국에 대운을 열기 시작하신 것이다.

末世出人攝政君들 當當正正 잃지마
 말세출인 섭정군 當當정정
 소 아차한번 失法하면 自身滅亡
 실법 자신멸망
 敗家로서
 패가未初歌(말초가)에서

"말세에 섭정군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바로고 당당하게 일을 하시오. 아차 한번 실법을 하면 섭정군 자신도 멸망을 하고 가정도 폐가 하게 된다"라고 기록한 내용이 있다. 이 말은 하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늘의 사람을 대신하여 섭정을 하게 맡김을 받은 이상 하늘의 뜻을 잘알아서 올바르게 일처리 하라고 하면서 아차하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뜻이다.

박태선 하나님과 박정희 대통령은 같은 동갑인 정사생(丁巳生)이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공화당은 '엄마'의 상징인 소를 내세웠다. 더욱이 하늘이 출현시킬 구세주는 소성품(小成性)을 가진 자라고 예언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을 통하여 하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고동소리가 우렁차게 울리기 시작하게 된다. 굶주림의 상징인 '보릿고개'를 넘기고 세계에서 놀라는 대 경제부흥을 일으키는 국가로 발전하게 된다. 정도령님이 오시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우리 조상님들은 입버릇처럼 말씀을 해오셨는데 그와 같은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징조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장군을 내세워 장면 정권에 의하여 구급되어 형을 받게 된 바로 그 날인 1961년 5월 16일 혁명을 성공시켜 박태선 하나님을 구출하신 후 영적인 왕과 육적인 왕으로서 두 분이 합작을 하여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위한 일을 하시기 된 것이다. 하늘은 박정희 장군을 박태선님 앞의 섭정군(攝政君)으로 세워서 구세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이다.*

한 사람이 나와서 목마른 자들을 교화하시니 다시는 영원히 목마름이 없겠네

게 해 놓은 것이다.

一水二水驚回地
 일수이수영회지

물(水)은 생수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뜻하니 '일수(一水)'는 시사진인(柿似真人; 감람나무와 같은 진인)의 영모님(태초의 하나님을 모신 박태선 장로님)이요 이수(二水)는 잃어버린 두 하나님 즉 아담 하나님과 해외 하나님인데, 고구려의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黃鳥歌)에 나오는 피꼬리 황조(黃鳥=鶯鶯)처럼 잃어버린 아담과 해외 하나님(二水)이 일수(一水; 태초의 하나님을 뜻함)의 품(地; 하나님의 마음=회복된 에덴동산=천국)으로 돌아오는(回) 피꼬리(鶯)와 같다. 이로써 일수(一水)에 이수(二水)가 합해지니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복원되도다.

利在石井永生水源
 이재석정영생수원
 一飲延壽可避瘟疫
 일음연수가피은역

이로움이 석정(石井)에 있네, 영생할 수 있는 물의 근원이네. 그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수명이 연장되고 사스(SARS)나 메르스(MERS)와 같은 어떤 괴질(怪疾)도 면할 수 있네.

* "利在石井生命線 四肢內裏心泉水

(이재석정생명선 사지내리심천수)" 즉 풀이하면 "이로움이 석정(石井)에 있으니 곧 생명선(生命線: 일종의 경락(經絡)이요, 팔다리(四肢)와 뱃속 깊이 흐르는 마음의 샘물이라." - 격암유록 石井水(석정수)편 참조

沙漠泉出錦繡江山
 사막천출금수강산
 一人教化渴者永無矣
 일인교화갈자영무의

사막(沙漠; 소사素砂를 뜻함)에서 나오기 시작한 샘물이 금수강산(錦繡江山) 한반도 전체로 통하네. 한 사람이 나타나 목마른 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어주시니 다시는 영원히 목마름이 없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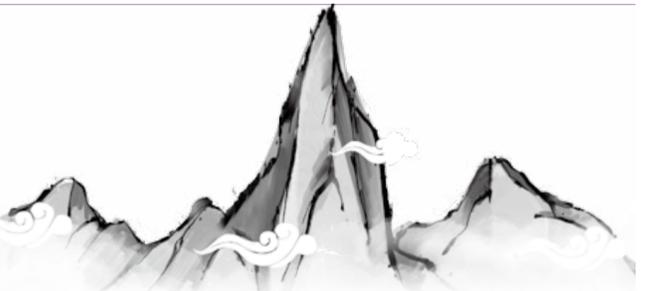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양떼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 성경 이사야 43장 19-21 절 참조 / 찬송가 1.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 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마시게 되리 2. 이 샘에 나는 물 강 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

이 없고 다 와서 먹고 또 될 수 있네 3.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갈하지 아니하고 맘 속에 흘러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4. 이 물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이 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하나님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 승리제단 찬송가 「목마른 자들아」 참조

賽四四(一) 새사사

無后裔之血孫鄭
 무후예지혈손정
 何姓不知何來鄭
 무성부지하래정
 鄭本天上雲中王
 정본천상운중왕

정도령(鄭道令)이 사람의 혈통을 따라 후손으로 난 것이 아님은 세속의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무슨 성씨인지도 알 수 없는 정도령(鄭道令)으로 오시네. 정도령(鄭道令)은 본래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와 같은 분이로서 풍운조화를 임의용지(任意用之)하시어 풍년이 들게 하여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시고 마치 구름을 타고 계신 것처럼 화우로삼풍해인(火雨露三豐海印)의 감로이슬성신에 둘러싸여 있도다.



* "천하열방회운(天下列邦回運) 근화조선개릉지(槿花朝暉雞籠地) 천중지성합덕궁(天縱之聖合德宮) 배궁지간양백선(背弓之間兩白仙) 혈유도중사해통(血遺島中四海通) 무후예지하래정(無后裔之何來鄭) 정본천상운중왕(鄭本天上雲中王) 부지하성정도령(不知何姓鄭道令) 부지하성백정운왕(龜龍石白鄭運王)" _ 풀이: 세계만국의 운이 돌고 돌아 무궁화 꽃피는 한국의 계몽(백석=소사)로 돌아오느니라. 하늘이 내리신 진인 정도령은 공을함덕한 분이여 궁궁(弓弓)이 등을 맞댄(백십자; 버

금 아포 속에 백십자) 사이에서 나오신 양백선신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피가 전해져 온 즉 친손민족이 살고 있는 남쪽 한국에서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진리가 사해(전 세계)에 다 퍼져 나가느니라. 혈손 줄이 없이 정(鄭=하나님)도령이 어떻게 인간 세상에 오셨는가? 정도령은 본래 천상의 운중왕(雲中王)인데 오늘날 정씨 왕으로 다시 오셨다. 정도령은 무슨 성씨인지 모른다. 소사에서 역사하시는 계몽(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하나님이 좌정하신 분)은 정씨 운으로 오신 구세주(양중왕)이시다.- 격암유록 계몽론(龜龍論) 참조* 吉星照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의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격암유록 新 해설 제38회

賽四三(二) 새사삼

二人橫三多會仙中
 이인횡삼다회선중
 避亂之邦多人往來之邊
 피란지방다인왕래지변

이인횡삼(二人橫三) 즉 부천(夫川)은 부천(富川; 고구려시대 주부토군主夫吐郡으로 불림)을 감춘 것으로 이곳에 많은 선인(仙人)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부천하고도 소사구 역곡3동 승리제단은 열방의 피란처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네.

* 이인횡삼(二人橫三): 二人의 합자는 인(仁)이요 橫三은 천(川)으로 풀이 인천(仁川)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격암유록은 그렇게 아무나 쉽게 풀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격암유록 송가전에 하늘이 감춘 예언서의 비밀문장은 "先後到着祕文法(선후도착비문법)이 隱頭藏尾混亂(은두장미혼란)하야 次序判端不亂故(질서판단불각고)로 日去月諳不厭(일거월저불고)로다"고 즉 "비문법은 선후의 순서도 없고 머리는 숨기고 꼬리는 감추어 혼란하게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서마저 판단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게 기록한 까닭으로 날이 가고 달이 차도 이러한 비문법을 돌아보는 자가 없으리라"고 말한 그대로 예언이라는 것은 아무나 풀 수 없게끔 혼란스럽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다.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야만 풀 수 있